

추석 가정 예배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1~2)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 589장 (통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같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들이 적으니
 3.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아가
 4. 거 뒤를 인 모 든 알 곡 천 국 창 고 들 인 후

어 디 든 지 태 양 빛 에 향 기 진 동 하 도 다
 열 심 있 는 일 꾀 들 을 주 여 보 내 주 소 서
 황 혼 때 가 되 기 까 지 추 수 하 게 하 소 서
 주 가 배 풀 잔 치 자 리 우 리 참 여 하 겠네

무 르 익 은 저 곡 식 은 낮 을 기 다 리 는 데
 때 가 지 나 가 기 전 에 어 서 추 수 합 시 다 아 멘

▣ 가족기도문 / 온가족

인도자 : 모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 족 :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인도자 : 주님께서는 허물을 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사
 가 족 :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자 :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가 족 : 메말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같이 :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 마태복음 9:35~38

-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 가족 나눔의 시간

1.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2. 목자 없는 양과 같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우리 가정이 주님께 구할 추수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보고, 추수할 일꾼과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 찬송 570장 (통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함께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고 거친 비 바람 상치 못하리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다
 사랑 하는 나의 목자 음성 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 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사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 다

후렴
 주는 나 의 좋은 목 자 나는 그 의 어린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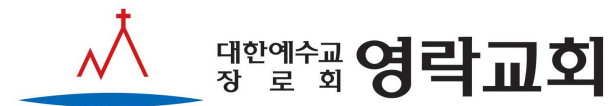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 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라 아멘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에 배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디모데후서 2:1~2)